

자연·역사·문화를 일상처럼 만나는 빛고을

설 명절은 이동과 만남이 겹치는 시기다. 귀성·귀경의 흐름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광주와 전남은 명절마다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지역이지만, 실제 선택지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 대규모 관광지보다 생활과 풍경이 맞닿은 장소, 계절의 분위기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곳부터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는 공간까지, 설 명절 연휴 광주·전남 가볼만한 장소를 정리해 봤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해발 1187m)은 광주를 중심으로 담양과 화순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명산이다. 국가 지질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역사·문화·지질학적 가치를 두루 갖춘 광주의 상징적 공간으로 꼽힌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빼어나다'는 이름처럼 무등산은 도심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장엄한 풍광을 유지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1000m가 넘는 산을 품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무등산은 도시의 배경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국립공원이다.

석대와 그 아래 약 700m 지점에 펼쳐진 임식대는 무등산 곳곳에 분포한 61개 주요 자연경관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비경이다. 무등산의 등산 코스는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출발 지점은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심사와 서석대의 가까운 원효사 입구다. 중심사 지구 탐방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새인봉과 서인봉, 중며리재, 장불재를 거쳐 정상 능선을 조망한 뒤 임식대를 지나 서석대에 이르는 코스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광주시민들의 뜻이 모여 탄생한 이 미술관은 광주의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허백련 선생의 산수화와 시, 서예 작품을 비롯해 서예가 장영철 등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있다. 원로 건축가 조성룡이 설계한 미술관 건물은 무등산 등산로 지형을 살려 지어져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광주시립수목원**=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공원형 수목원이다. 망고와 파파야 등 열대식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온실을 비롯해 한국정원, 전디광장, 초화원, 오감정원, 관목원 등 다양한 주제 정원이 조성돼 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정서적 여유를 제공하며, 숲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18기념공원**= 5·18기념공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당시 군사시설이었던 상무대가 이전하면서 정부가 부지를 제공했고, 광주시는 1998년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과 정신 계승을 목표로 20만8000m²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에는 5·18기념문화센터를 비롯해 시민군 조각상과 추모·승화 공간, 원형 분수 형태의 대동광장, 5·18 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 등이 자리하고 있다. 여의산 자락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으며, 정상부에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누각 오월대가 설치돼 있다.

현재 이곳은 추모와 기념의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하는 9만2090m²가 녹지로 조성돼 전통 연못과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지며, 아이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국립 광주과학관은 2013년 개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관으로, 호남권 과학기술 대중화와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관을 제외한 1층 일부 공간은 무료로 개방돼 있으며, 체험 중심의 전시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2층 전시관에서는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 꽃을 만지는 체험 등 과학 원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운영된다.

야외에는 이동천문대와 놀이터가 조성돼 있고, 2017년에는 직경 12m 규모의 360도 폴스피어 영상관이 문을 열었다.

2019년 신축된 별빛누리관에는 천문대와 함께 푸드코트,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주 망원경 구경 12m는 국내 과학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14일부터 18일까지 '설레는 과학놀이 한마당'을 열어 시뮬레이션과 K-POP 탈춤 공연, 띡메치기, 전통놀이, 전통악기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서 '힐링'

정상 능선에 펼쳐진 풍경 감상

도심 한복판 장엄한 풍광 유지

공연·전시보고 역사탐방도 하고

연휴 내내 체험프로그램 '풍성'

국·내외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가족·연인과 호수생태원 '한바퀴'

미술관·박물관·수목원서 추억여행

5·18 추모·기념 넘어 휴식처 각광

차이코프스키의 4대 제자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한 작곡가 정주 선생을 비롯해 김현승 시인, 문순태 소설가, 드라마 '첫사랑'을 집필한 극작가 조소호 등 문화예술인들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광주시 기념물 제17호인 수령 400년의 흐랑가시나무는 양립동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상징이다. 양립동을 둘러본 뒤 충장로와 광주북동천주교회로 이어지는 길은 1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산책 코스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북구 충효동 광주호 상단부에 조성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18만4948m²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관찰원과 자연학습장, 전디휴식광장, 수변습지 등 테마별 공간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 도심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2006년 개장 이후 어린이들의 생태학습 공간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수목 5만2000주와 초본 15만5000본을 비롯해 생태연못, 무궁화동산, 전망대, 데크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을 따라 이동하는 스텝프 투어와 생태·환경·역사문화를 함께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인근 담양의 식영정과 소쇄원 등 기사문학 유적지와 연계해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기에도 적합하다.

△**의재미술관**= 의재미술관은 남종문인화의 대가로 평가받는 의재 허백련(1891~1977) 선생의 예술 세계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 건립됐다. 1000명이 넘는



△**양립동역사문화마을**= 남구 양립동 역사문화마을은 광주의 근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다. 100여년 전 광주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지역으로, 광주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양립동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서양식 건축물과 근대 한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이 이어진다.

이장우 가옥과 최승호 가옥 등 전통 가옥은 물론, 근대기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이 현재까지 보존돼 있어 시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전통과 근대, 유교와 기독교, 한국과 서구 문화가 충돌 없이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